

# “안경 끼고 뉴스·노브라 방송...왜 안 되죠?”

“튀어 보이기보다 용기 주고 싶었다  
누군가 변화 찾는 계기 됐다면 만족”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걸음.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죠.”

그야말로 ‘파격’ 행보다. MBC 임현주(35) 아나운서의 최근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무리일까.

2018년 4월, 여성 아나운서로서는 드물게 안경을 쓰고 ‘뉴스투데이’ 생방송을 진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달 13일 다큐멘터리 ‘시리즈M’으로 공개한 ‘노브라(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 체험기’로 시청자의 엇갈리는 시선을 모았다.

“제작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매일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느낀 그대로를 보여주면 된다고 해서 출연했다. 내 ‘노브라 데이’가 주변 여성들은 당연하게 감내했던 불편함을 향한 공감대로, ‘시리즈M’ 제작진을 비롯한 남성들에게 폭 넓은 이해의 계기로 이어진 게 흥미로웠다.”

안경도, ‘노브라’도 출발점은 같았다. “왜 안 되지?”라는 의문이었다. 임 아나운서는 “불편한 것을 두고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이 들면 행동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생각은 해도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것들”이라도 “일단 해 보고 판단한다”는 소신을 따른 결과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연하다 여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만난 임현주 아나운서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향한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겼던 사항들이 선택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물론 대중에게는 아직도 ‘극과 극’의 반응을 얻고 있지만, “누군가 변화를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웃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체험기가 다음날 곧바로 1만 조회수를 넘고 이제는 30만 회 가까이 됐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건가 놀랍더라.(웃음) 그중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하지만 상처받거나 위축되진 않는다. 여성이자 직장인, 방송인

으로서 느끼는 제약을 말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필 하든 관심 없다’는 댓글도 있던데, 그럼 그걸로 끝! 지나가셔라. 하하하!”

원래 ‘무뎀당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11년의 방송 경험이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9년 KN N에서 시작해 KBS 광주방송(2011), JTBC(2011~2013)를 거쳐 2013년 MBC에 안착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가 “나다운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 과정을 거쳐 MBC로 왔다.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웃음) 2017년 파업 등 내부적인 혼란으로 방향성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를 통해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꿨다.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사소한 변화와 행복을 희생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아나운서로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됐다. 그렇게 ‘나다운’에 집중했더니 방송이 더 재미있어졌다.”

“하고 싶은 걸 재미있게 하고 싶어” 유튜브 ‘임아나채널’ 계정도 열었다. 그러면서도 “아나운서로서 중립성을 지키는 게 1순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내 자신을 대중과 공유하는 순간과 아나운서로서 카메라 앞에 설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의 ‘브랜드(색깔)’이 중요해진 시대다. 튀어 보이라는 게 아니라 나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MBC 아나운서국 안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나만의 속도에 맞게 내 길을 걸어가고 싶다.”

시청자에게 어떤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은냐고 물었다. 단번에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임현주답네! 그 말의 해석은 바라보는 사람의 몫이다. 하하하!”

유지희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김혜수·정우성 등 코로나19 성금 기탁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들이 잇따라 나서고 있다. 26일 배우 김혜수를 비롯해 정우성, 고수, 주지훈, 박해진, 이시영, 방송인 강호동, 김혜은, 가수 김종국, 헤리, 수지,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등 연예인들이 각 NGO 등을 통해 성금을 기탁하거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건넸다.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잊지 않고 있다. 최근 스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따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관련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학교’ 제작진 감금 혐의로 고발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의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시청자로부터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26일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엠넷의 운영사 CJ ENM 소속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공소장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작진이 “합숙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출연 연습생들을 통제했고, 일부 연습생들이 집단으로 합숙장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제지하고 복귀시켰다”면서 형법상 감금 혐의를 주장했다. 또 “후대전화 압수, 대부분 미성년자에 만 15세 미만 연습생들임에도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촬영을 강요했다. 또 식사를 통제해 일일적인 다이어트를 강요했다”면서 강요죄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돌학교’ 일부 제작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임시 휴관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의 서울 건대입구점이 임시 휴관한다. 26일 롯데시네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극장 측은 영화관 전체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확진자가 20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9관에서 가족 3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영어권 최초 타이틀...‘기생충’-BTS 닮은꼴 행보

‘기생충’, 한국어로 아카데미 4관왕  
BTS, ‘빌보드 200’ 네번째 1위 예약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약속한 듯 같은 시기 한국어 콘텐츠로 전 세계 대중문화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나란히 ‘비영어권 최초’라는 값진 타이틀을 얻었다. ‘기생충’이 비영어권 언어로 제작된 영화로는 최초로 10일(이하 한국시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등 4관왕을 거머쥘 불과 한 달여 만에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노래한 새 앨범 ‘MAP OF THE SOUL:7’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네 번째 1위를 예약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한국어 영화와 앨범이 같은 시기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처음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고 연이어 두 번 더 정상에 오르며 케이팝의 세계화를 증명했다. 2년이 지난 올해 ‘기생충’이 할리우드에 견고히 쌓인 “1인치의 장벽”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봉 감독의 말처럼 방탄소년단도 ‘단 하나의 언어, 음

악’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최근 펴낸 ‘한국인 이야기, 탄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말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한국어의 승리”라고 평했다.

역사를 함께 써가는 봉 감독과 방탄소년단은 서로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도 보낸다. 특히 봉 감독은 1월6일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한국이 독창성을 선도한다’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렬하고 다이나믹한 나라”라며 “BTS(방탄소년단)의 파워는 저의 3000배가 넘는다”며 추켜세웠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기록 행진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역대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흥행 4위에 등극한 ‘기생충’은 일본에서도 누적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200’ 1위 예약과 동시에 24일 기준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1일 앨범 발표 직후 무려 91개국 및 지역 아이튠즈 집계 ‘톱 앨범’ 정상도 밟았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 아이돌 ‘솔로 대전’

청하 ‘뉴웨이브’ 통해 29일 신곡 발표  
샤이니 태민·엑소 수호 3월 솔로앨범



아이돌 솔로가수들이 대격돌한다. 음원 및 음반 최강자들의 컴백 행렬이 잇따르면서 순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룹 샤이니의 태민이 솔로로 돌아온다. 태민은 3월 중순 새 음반을 발표하고 흥행 파위를 이어간다. 2008년 샤이니의 멤버로 데뷔한 태민은 ‘에이스’, ‘괴도’, ‘프레스 유어 넘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무브’(MOVE)로 ‘무브병(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엑소의 수호도 3월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재 새 앨범을 내놓을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엑소 멤버 가운데 솔로 활동은 천과 백현에 이어 세 번째다.

여성 솔로가수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청하도 돌아온다. 26일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청하는 새 뮤직프로젝트 ‘뉴웨이브’를 통해 29일 신곡을 발표한다. ‘뉴웨이브’는 ‘가요계에 새로운 음악으로 물결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앞서 소속 걸그룹 밴디스가 이를 통해 ‘쿨’이라는 노

래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그룹 비투비의 멤버 육성재도 다음달 솔로앨범 ‘육 어클락’(YOOK 0'clock)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과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프로젝트 싱글 6곡에 신곡 ‘그날의 바람’까지 모두 7곡을 담아 선보인다.

이들에 앞서 솔로음반을 발표하고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마마무의 문별이 존재감을 알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앨범 발표 첫날인 14일 하루에만 5만9000여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그는 타이틀곡 ‘달이 태양을 가릴 때’로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는 “최근 케이팝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마무가 솔로앨범을 통해 멤버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서 문별에 대해 “대담한 사운드와 스타일로 가수 겸 래퍼로서 이중성을 강렬하게 보여줬다. 음악을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마마무의 유산을 이어간다”고 호평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대한민국의 노동개혁,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다

### ●노조공화국

(윤기설 저 | 미래사)



저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경영을 옥죄는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행태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 노조의 파업 관행, 민주노총 내부의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 등의 실

태를 분석했다. 노동운동가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부에서는 친노동 정책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으며 3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앞선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4부도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동 대학에서 노동경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30여 년간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 좋은일자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 ●생생경매성공기 2.0

(안정일, 김민주 | 지상사)



네이버카페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 마련’, 유튜브채널 ‘설마 안정일경매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설마(雪馬) 안정일’과 ‘레이디김’ 김민주의 저서, 고려대학교 정보공학과를 졸업한 안정일은 졸업 후 7년 동안 여러 IT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한두 군데를 빼고는 근무했던 대부분의 회사가 망했다”라 밝히고 있다.

2004년 자자돈 3000만 원을 마련해 경매의 세계에 투신한 저자는 불과 3년 만에 집 22채를 보유하고 중

부세 1000만 원 납세자로 ‘등극’하게 된다. 2016년에는 채널A의 ‘서민갑부’에 출연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자의 꿈은 건물주. 임대인이 되는 것이다. 원룸(혹은 투룸) 10가구쯤 있는 건물을 보유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200만~300만 정도가 되면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퇴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돈을 모으면, 어느새 저만큼 도망가 있다.

이 책은 작은 돈으로 경매를 통해 건물주의 꿈을 이루는 방법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푼돈으로 큰돈을 만드는 확실한 비결’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다. 저자들은 말한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낙찰이 아니라 오로지 수익”이라고.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